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49호 / 08월 18일

중국, 민영은행 설립 논의 활발

1. 개요

- 경쟁력을 갖춘 금융시스템 구축이 중국 금융부문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최초의 본격적인 민영은행 설립안이 학계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지난 7월 하순 북경대 중국경제연구센터에서 동 센터와 長城금융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우징롄(吳敬璉), 마오위스(茅于軾), 린이푸(林毅夫), 시아빈(夏斌), 시에핑(謝平), 류즈창(劉志強) 등 학계, 금융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하여 조만간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정식 비준을 신청할 5개 민영은행의 설립안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음.
- 세미나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민영은행 설립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선결과제로서 목표시장 및 대상고객의 명확한 설정, 리스크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음.
- 한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측은 민영자본과 외자의 은행업 진출을 환영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신규 은행의 설립보다는 민영자본이 기존 은행의 개편에 참여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5개 민영은행 설립안이 제기된 배경 및 기본 구상

- 2000년 이래 3년간 북경대를 비롯한 중국내 주요 대학과 중국사회과학원 등은 중국의 지역별 경제발전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주식제은행의 설립 및 이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혁신 방안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는바, 이번에 공개된 5개 민영은행 설립안은 이같은 공동연구의 산물임.
- 신설 민영은행 후보로 선정된 5개 은행은 南華은행, 江陰상업은행, 深川民華은행, 深陽瑞豐은행과 西安長城은행 등으로, 각각 중국내 3대 민영경제모텔(溫州, 蘇南, 珠江델타) 및 동북전통공업지역과 서부지역을 대표하고 있음.
 - 이들 은행이 순조롭게 비준을 받을 경우, 중국 최초로 민간이 발기하고 민간이 설립한 명실상부한 “폴뿌리” 민영은행이 탄생하게 될 것임.
 - 모두 중소기업을 주고객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들 은행의 설립은 금후 중국의 민영은행 설립시 모델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의 금융체제개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5개 민영은행 설립안의 기본내용

명칭	등록자본(元)	등록지	주요 주주
沈阳瑞丰银行	2억	沈阳	沈阳乐宇集团, 吉林亚春股份有限公司 (台湾 沈阳建宏混凝土有限公司)
南华银行	2억	佛山	广东志高空调, 力中集团, 广州金誉投资有限公司
심천民華銀行	5억	심천	深圳中科智集团公司가 18%의 지분 보유, 나머지 82%의 지분을 10개 주주가 보유
西安长城銀行	5억	西安	국유자본을 배제하고, 소요자본을 전액 민간에서 조달
江陰商業銀行	2억	江陰	江苏申龙高科技股份有限公司, 申集团有限公司, 南京中达制膜(集团)股份有限公司, 江陰瀛寰资产投资有限公司, 上海泛源投资有限公司, 이 밖에 시티뱅크, IFC 자본 유치 예정

3. 주요 토론 이슈 및 전문가 견해

□ 외형적인 규모확대 및 과도한 경영목표

- 5개 은행은 모두 상당히 야심적인 규모 확대와 경영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바, 예컨대 瑞豐은행은 2023년까지 “동방의 시티은행”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며, 南華은행은 개업 3년만에 투자규모 및 주식규모를 5배로 확대하고, 5년째부터 稅前 이윤 1억 8,000만 元, 순자산수익률 15.8% 실현 목표를 제시함.
- 이에 대해 저명 경제학자인 DRC의 우징롄(吳敬璉), 天則경제연구소의 마오위스(茅于軾) 교수 등은 고수익 추구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경계하면서 온건 경영을 강조했다며, 中信實業은행 류즈창(劉志強) 부행장도 급속한 팽창과 과도한 목표 설정은 기존 상업은행의 부실화 과정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목표시장 및 고객 설정과 업무영역의 특화

- 이들 은행은 모두 주요 목표고객을 중소기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고유의 특화된 업무영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o 동북의 전통적인 공업지구를 대표하는 瑞豐은행은 국유기업 정리해고자를 주요 서비스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深川民華은행은 광둥지역의 중소기업, 향진기업, 삼자기업 및 개인을, 南華은행도 중소기업과 개인을 목표고객으로 삼고 있음.
- 中信實業은행 류즈창(劉志強) 부행장은 민영은행이 대형 종합은행을 지향하는지, 특정 그룹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 전문은행을 지향하는지, 먼저 설립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경대학 경제학원 차오펑치(曹鳳岐) 교수는 신설 민영은행이 기존의 국유은행, 주식제은행, 도시상업은행에 비해 어떤 경쟁우위를 갖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함.

- 우징롄(吳敬璉) 교수는 신설될 민영은행이 자체 보유한 정보와 전문지식, 관리 경험을 이용하여 기업에게 시장정보와 경영시스템, 투자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른바 기업에 대한 ‘재무고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각 은행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 있음.
 - 瑞豐은행은 불량자산 비율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주주들로 하여금 자본금을 보전토록 함.
 - 南華은행은 10대 고객에 대한 대출총액이 은행 총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 고객에 대한 대출잔액이 은행자본금 잔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게 함.
- 린이푸(林毅夫) 교수는 주주권을 집중시키는 것이 대출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5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한 명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동시에 은행규모가 급속히 확장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권한이 희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 中信實業은행 류즈창(劉志強) 부행장은 은행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DRC의 우징롄(吳敬璉) 교수는 주주권과 경영권의 명확한 분리를 강조하고, 은행 설립시 지분 참여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기업에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일부 민영기업가들의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상기 5개 민영은행의 설립안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들 견해를 반영하여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준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임.

- 長城금융연구소 쉬디엔칭(徐滇慶) 소장은 5개 중 2개 정도는 정식 기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사례는 금후 중국 민영은행 설립에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논평함.
- 그러나,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측은 민영자본과 외자의 은행업 진출을 환영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신규 은행의 설립보다는 민영자본이 기존 은행의 개편에 참여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금년 3월 북경대학과 홍콩대학이 공동주관한 한 세미나에서 인민은행 우샤오링(吳曉靈) 부행장은 은행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민영은행 설립을 통한 소유제 변화만으로는 미흡하며, 전반적인 금융산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논평한 바 있음.
 - 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회 이강(易綱) 비서장은 민영은행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감독메커니즘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함.
 - 또한, 인민은행 금융연구국 시에핑(謝平) 국장도 중국에서 省市級 대도시에서의 민영은행 설립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당분간은 縣級 이하 소도시에서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후 점진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현재 중국경제 성장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민영부문의 발전을 기존의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정부 당국의 유보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영은행 설립에 대한 요구는 금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